

2015 개정의 특징과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정 광 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그동안 top-down 식의 교육과정 정책 및 전략을 사용하여 ‘국가교육과정 문서-(국정)교과서-수업’의 경로를 만들어 모든 학교 모든 교사와 학생의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학교교육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 해 왔다. 덕분에 빠른 시간에 성장 체제를 갖추었고, 또 학교교육은 그만큼 급성장 했다. 그런데 이제 학교교육의 가장 bottom 지층에 위치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관성+다양성을 갖춘 전환 및 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교과서’가 해 온 역할을 ‘교사’가 할 수 있도록, 즉 ‘국가교육과정-교사-수업’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지금까지처럼 교과서에 만들어서 제공하는 수업을 잘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직접 ‘성취기준’을 가지고, 교실 학생과 함께 교실에 가장 정합하는 수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일관성과 교실 수업이 추구하는 다양성을 교사를 통해서 공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단위 학교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상용자로서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서 ‘교과서’라는 중간 매체 없이 교육과정-수업을 직접 연동하기는 아직은 힘겹지만, 2015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적어도 교사를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주인’ 입을 전제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 좋은 문서보다, 교사가 사용하기 좋은 문서가 되도록 마지막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경자 교수님의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초·중학교 편성·운영 중점’을 읽고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이 지향하는 특성을 요약하면, 결국 ‘핵심 역량(혹은 교과 역량) 반영과 핵심개념 체제의 교과 내용을 정비하는 일’이다. ‘역량’ 반영은 성취기준에 반영해서 수업과 연동을 강화할 수도 있고, 성취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교과 내용 수업을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해서 다루도록 할 수도 있다. 전자의 입장을 지향한다면, 교과에 성취기준 진술문을 검토하여 역량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후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교사가 성취기준을 가지고 역량 중심의 수업을 설계를 안내하는 지침을 추가 하고 동시에 교사의 수업설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 개발(수업설계)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수행기준으로 진술한 이번 성취기준이 교실 수업의 장에

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정 교과는 성취기준 수를 2009 대비 적어도 1/4 ~ 1/3 수준으로 그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개념을 설정하여 정비한다는 취지는 알지만, 지금의 성취기준은 교과에 따라 양적으로 그 수를 줄이는 문제가 더 급선무인 교과도 있다. 마지막 점검 때까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서체제가 다분히 제공자의 입장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별로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가령, 단위학교 교사의 입장이라면, II-1. 학교 급별 공통 사항을 따로 두어야 할까 싶다. 공통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항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공통사항 보고, 초등학교의 것 보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접하도록 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II을 III에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